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혁신하여 “두가지 공동” 시범구를 창조해야

—장안순 길림성대표단 18 차당대회 보고 토론 및 매체개방일에 주제발언



18 차 당대표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장안순서기

당대회에 참가한 장안순이 길림성대표단 18 차당대회 “보고” 토론 및 매체개방일 주제발언에서 18 차당대회는 우리 당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한 중대한 현실적의의와 심원한 역사적의의가 있는 중요한 회의라고 하면서 호금도동지의 “보고” 및 지도동지와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네가지 면에서 깊은 감수를 받았다고 했다.

첫째, “보고”는 우리 당의 리론혁신성과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과학적발전관에 대해 새로운 객관적평가를 했다. “보고”는 과학적발전관의 함의, 지위, 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천술하고 전면적으로 해답을 주었으며 과학적발전관의 지도적지위를 확립했다. 둘째, “보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전면적으로 이룩하는데 대해 “여덟가지 기본요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당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였음을 상징한다. 이 “여덟가지 기본요구”는 역사에 대한 심각한 총화이고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파악으로서 모든 곤난과 위험을 이겨낼 우리의 신심과 결심을 더욱 확고

하게 할것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전면적으로 달성하는데 든든한 토대를 닦아놓을것이다. 셋째, “보고”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하고 분투목표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기했다. 인당 소득을 2 배로 늘여야 한다는 지표는 분량이 아주 무거운바 인민생활의 행복에 대한 중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의 초요사회건설요구로부터 이번 “보고”가 운데 제기된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달성은 우리 당의 신심과 역량을 구현했다. 넷째, “보고”는 “5 위1 체”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총체적포치를 제기하고 생태문명건설에 대해 새롭게 천술했다. 생태문명이라는 관념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총체적포치를 더욱 충분하게 하고 더욱 립체적이 되게 했다. 우리 성은 생태자원이 좋다. 특히 연변은 삼림피복률이 80.4%에 달한다. 이는 연변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우세와 잠재력이 된다.

장안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